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박지성 2호골…맨유 9연승 견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10일 홈에서 펼쳐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후반 33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쓰러지며 오른발 슛으로 팀의 두 번째골을 터트리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전…후반 루니 도움으로 쐐기골

'신형 엔진'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올 시즌 2호골을 터트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박지성은 10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펼쳐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3차전 아스날과 홈경기에서 후반 33분 웨인 루니의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팀의 두 번째골을 터트렸다.

이로써 박지성은 지난 2월 5일 풀햄전에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지 2개월여만에 골 맛을 보면서 올 시즌 2골 6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챙겼다.

후반 9분 웨인 루니의 결승골과 후반 38분 박지성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올린 맨유(승점 75)는 9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4-1로 이긴 리그 선두 첼시(승점82)와 승점차를 7점으로 유지하면서 역전 우승의 불씨를 지폈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한 박지성은 이날 '득점 기계' 앙리가 벤치를 지킨 가운데 최전방 공격에 나선 아데바요르 및 중앙 수비를 맡은 센데로스와 맞대결을 펼쳤다.

후반 9분 오버래핑에 나선 실베스트르의 크로스를 루니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으로 아스날의 골그물을 철썩였다.

위기에 몰린 아스날은 후반 24분 반 페르시를 빼고 앙리를 투입하고, '백전노장' 공격수 융베리까지 출격시키면서 동점골을 노렸다. 하지만 아스날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바로 박지성이었다.

후반 33분 오른쪽 측면에서 게리 네빌이 투입한 볼을 루니가 수비수 센데로스의 태클을 피해 페널티지역 오른쪽 엔드라인까지 치고 들어간 뒤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박지성에게 땅볼 크로스를 밀어줬다.

박지성은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텅빈 골네트를 흔들면서 자신의 정규리그 2호골과 더불어 이날 승리의 쐐기포를 쏘아 올렸다.

팀의 두 번째 골을 엮어낸 박지성은 후반 38분 맨유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수비수 파트리스 에브라와 교체아웃되면서 이날 맹활약을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아드보, 유럽파 점검차 출국

"박지성 골 매우 멋있었다"

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럽파를 점검하러 10일 출국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일단 고국 네덜란드에 들렀다가 곧장 잉글랜드로 넘어가 설기현(27.울버햄프턴)의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다. 설기현은 주말 무려 10경기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지난 주 인터뷰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멤버들의 경험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밝힌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 유럽파들의 독일행 엔트리 합류 여부에 대한 결심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번 주말 잉글랜드와 독일에서 하루 간격으로 열리는 설기현, 안정환(30·뒤스부르크), 차두리(26·프랑크푸르트) 출전 경기를 직접 관전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럽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월드컵 본선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20일께 돌아올 예정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날 새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터진 박지성(25)의 골에 대해 "매우 멋있는 골이었다. 내겐 (박지성이)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켈슨 "우즈 공포 벗었다"

우즈 꺾고 마스터스 우승
'2인자·새가슴' 꼬리표 떼
'양강 체제' 굳히기 돌입

'골프 명인열전' 마스터스에서 두번째 그린재킷을 입은 필 미켈슨(36·미국)이 타이거 우즈(30·미국)와 '양강 체제' 굳히기에 돌입할 조짐이다.

미켈슨은 그동안 우즈의 그늘에 가려 2인자의 설움이 뼈에 사무친 비운의 스타였다.

우즈에 앞서 아마추어무대를 석권한 뒤 5년 빠른 1992년 프로에 데뷔한 미켈슨은 1993년부터 단 두 시즌을 빼고 해마다 우승컵을 거머쥐었지만 1인자의 자리는 언제나 다른 선수에게 양보해야 했다.

특히 초년병 시절이던 투어 4년차를 넘기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최고 스타로 발돋움하려던 미켈슨에게 우즈의 투어 데뷔는 거의 '재앙'에 가까웠다.

고비마다 우즈에게 번번이 발목이 잡혔던 미켈슨은 특히 메이저대회에서 12년 동안 46차례나 출전하고도 한번도 우승하지 못해 '새가슴'이라는 비아냥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선수에게도 '우즈 공포증'이 만연해 있었지만 미켈슨은 어니 엘스(남아공)와 함께 우즈만 만나면 제 풀에 무너지는 중증 환자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다만 위안거리가 있다면 인기에서는 우즈를 오히려 능가했다는 사실.

영화배우 빰치는 외모에다 PGA 투어에서 1, 2위를 다투는 장타력, 컴퓨터 아이언샷, 그리고 당대 최고라는 로브샷 기술 등을 갖춘 미켈슨은 골수 골프 팬들에게는 우즈를 뛰어넘는 최고 스타였다.

이런 인기는 특히 앞서고 있을 때도 굳히기를 노리기보다 무모하다는 우려를 살만큼 과감한 경기를 펼치는 열혈남아형 플레이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마스터스에서 첫 메이저 왕관을 쓴 미켈슨은 벌써 3년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메이저 강자'로 거듭났다.

우즈와 맞대결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미켈슨의 첫 상금왕 도전은 전망도 밝다.

유일한 걸림돌은 물론 '골프황제' 우즈다. 우즈와 미켈슨은 올해 나란히 2승씩을 수확하면서 벌써부터 '2파전'에 나설 조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일 열린 마스터스 골프에서 우승한 필 미켈슨이 전년도 우승자인 타이거 우즈가 입혀주는 그린재킷을 입으며 활짝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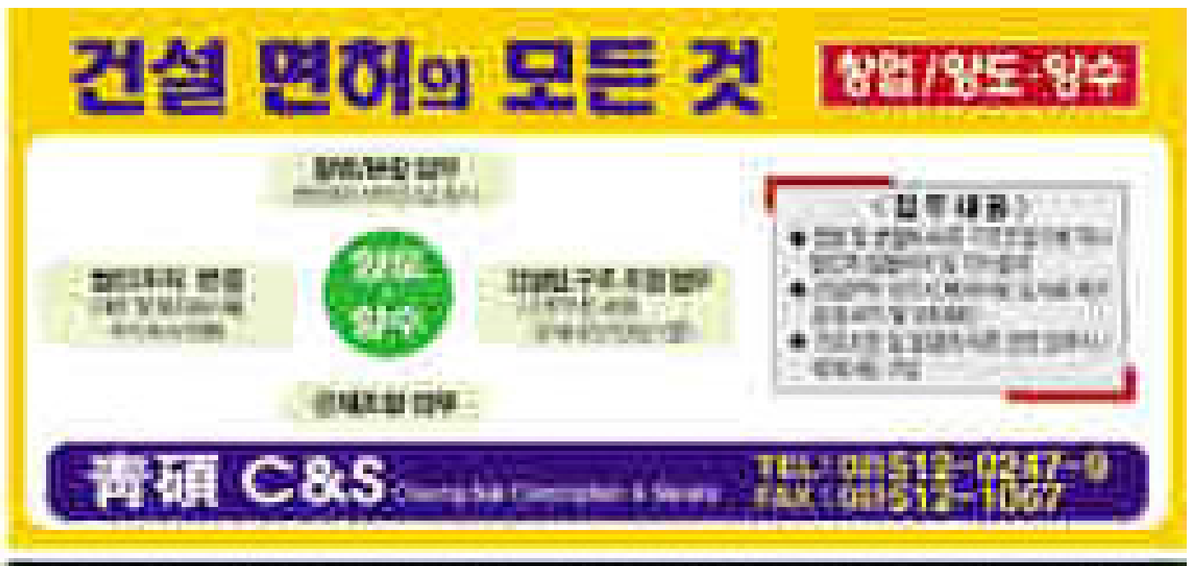
미켈슨 7언더…두번째 '그린재킷'

지난 2004년까지 46차례 메이저대회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해 '메이저 무관의 제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감수했던 필 미켈슨(미국)이 생애 두번째 마스터스 그린재킷을 차지하며 3년 연속 메이저 왕관을 썼다.

미켈슨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7천445야드)에서 열린 최종일 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 팀 클라크(남아공·283타)를 2타차로 따돌린 미켈슨은 이로써 2004년에 이어 2년만에 그린재킷을 입었고 작년 PGA챔피언십을 포함해 3개째 메이저 우승컵을 수집했다.

1주 전 벨사우스클래식 제패에 이어 2주 연속 승전고를 울린 미켈슨은 시즌 2승과 함께 상금 126만 달러를 보태 상금랭킹 1위(312만3천827 달러)에 올라서 생애 첫 상금왕 도전에도 물꼬를 텄다.

마스터스 직전 대회 우승과 마스터스 제패는 1988년 샌디 라일 이후 18년만에 나온 진기록.

대회 2연패와 통산 다섯 번째 그린재킷을 노리던 우즈는 2타를 줄이는데 그쳐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커플스와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스페인), 그리고 US오픈을 2차례 우승했던 구센과 2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섰던 채드 캠벨(미국) 등이 우즈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